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이륙하면 도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스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법을 만났으니 그런 큰 복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우리 마음은 절대평등하고 이것은 어떠한 장애와 결핍이 없기 때문에 마음 자체 그대로가 자재무애하고 상주불생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대로 미혹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절대평등인데 마음을 모르면 그대로 불평등이 되어 버립니다. 불평등이 되면 이로 인해서 모든 갈등이 생겨나요. 그리고 업에 끄달려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생육도하게 됩니다. 영원불멸의 생명체인 마음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 의심해 나가는 것이 화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고’를 계속 의심해가면서 화두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선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의심인데 의심은 의심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의심을 간절히 해나가다 보면 화두가 익어 번뇌와 망상이 자연히 소멸된다. 천만 가지 의심이 한 의심으로 의단이 되어 한 의심만 풀리면 천만가지 의심은 한꺼번에 풀려서 일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화두참선이다.

“스스로 화두를 잊지 않으면 계정해 삼학이 되니 자연 탐진치(貪瞋癡) 삼독이 없어지고 우리의 근본 무명이 타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수행이고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그동안 그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너무 중해 화두 참선을 하려고는 하는데 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다보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확절대오하게 됩니다. 남이 받지 못한 복을 받지만 남이 하지 못할 일을 능히 해내야 합니다.”

대정 스님은 60년 넘는 세월동안 화두참선을 하였기에, 그 화두 참선이 너무나 좋아 만나서 사람들에게 간곡히 권하며, 초심자에게는 참선의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신다.

“의심은 탐구심, 정신집중을 말합니다. 의심은 생각도 아니고 뜻도 아니며, 오직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탐구심에서만 우리의 근본 참모습 본래면목이 나오게 됩니다. 본래면목이란 바로 참마음이요 부처님 성품입니다. 부처님 성품은 큰 도로 인해 나오고 이 도는 선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어요. 부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밖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불은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이 전부 소멸되는 것입니다.”

대정 스님께서는 63년간 화두참선을 하셨지만, 교학을 가버려 여겨서는 안됨을 강조하신다. “교학하는 사람이 선을 알지 못하면 교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한 사람이 교를 알지 못하면 교는 그만두고 선도 알지 못합니다. 선과 교는 원래 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은 선이고 교는 교인 것이지, 선이 교가 될 수 없고 교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은 우리 모두의 마음

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일체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근본바탕입니다. 마음 밖에 선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마음에서만 마음 문제가 해결되지 마음 밖에서 마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계속해 들고 나가면 의심이 나고 드디어 나와 의심이 둘이 아니고 통일이 됩니다.”

금정산 범어사에 주석하신지도 20년의 세월이 넘는다. 그 동안 대중들이 두 번이나 범어사 주지 소임을 맡아주기를 간청했지만, 대정 스님은 이미 16살 때 제행무상을 빼어 사무치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다.

올해로 꼭 한 해가 빠지는 팔십이신 대정 스님은 오랜 토굴생활의 습도 있지만, 내 심부름은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기에 청소와 빨래를 몸소 하신다. 그리고 하루 두 번 대중들과 함께 공양을 하고 점심공양은 스님의 거처인 휴휴정사의 쉼에서 솟아나는 찬물 한 바가지로 채운다. ‘검박하다’ 하는 말조차도 사치가 되어 버리는 대정 스님의 삶에 대해 찬탄을 하였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을 닮고 싶어 출가를 했으니 부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답하신다. 무욕으로 일관되게 살아오신 대정 스님께 인간의 욕망에 대해 질문을 드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심은 욕심인데 욕심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도 과식하면 음식이 아니라 독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듯이, 모든 것이 지나치면 독이 되어버립니다. 남을 속이고 살생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眞心)이고 이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이 탐심으로 인해서 진심이 나오고 진심으로 인해서 지식이 나오게 됩니다. 계정해를 지키면 탐심과 진심이 차이는 절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께 새해에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가르침을 구했다.

“과거·현재·미래는 중생의 망념에 불과하며 실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새해니 묵은 해니 구분하지 말고 항상 깨끗한 생각과 고요한 마음, 맑은 정신을 잃지 않고 계속 살려나가세요. 그러면 그동안 나를 괴롭혀던 번뇌와 망상이 차츰 사라져 자신의 고뇌에서 해방이 됩니다. 마음속에 상대성이 사라지면 분별심이 작용하지 않으니 그대로 행복입니다.”

대정 스님처럼 점심 한끼를 때울 요량으로 한 바가지의 물을 마셔보았다. 금정산에서 솟아나는 물은 차가웠지만 아주 달았다. 감로수와도 같은 대정 스님의 법문을 듣고 산문을 나서니 세상이 왜 그리도 변잡하게만 느껴지는지...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대정 스님은
1946년 대구 경북중학교 재학 중 지리산 쌍계사로 입산. 1950년부터 59년까지 모악산에서 토굴생활을 하면서 정좌불교. 19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 수지. 1960년부터 1967년까지 지리산에서 토굴을 짓고 용맹정진. 1967년부터 70년까지 범어사, 해인사, 마곡사, 선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 1970년부터 79년까지 지리산에서 생식과 일종식으로 수행정진. 1979년 이후부터는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정진하고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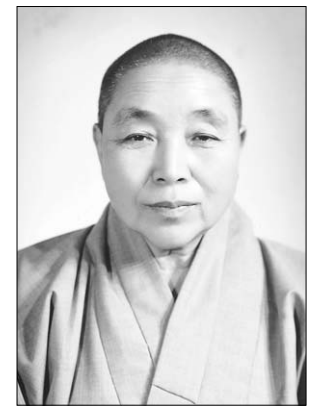
〈25〉보문사 송은영 큰스님

서울 보문동에 소재한 보문사는 속칭 탑골승방으로 고려 때 답진 국사가 처음 지어 비구니스님들을 거처하게 한 뒤에 조선조 묘점 스님이 증건하고, 보한·유봉 스님이 대웅전을 짓고, 정운 스님이 좌우 양당을 개축하여 은영 스님의 은사 금탄스님께 넘겨 주었다. 금탄 스님은 복형 스님께 물려주니, 복형 스님은 다시 금탄 스님의 제자 은영 스님께 주지직을 물려주어 삼성각, 선불장, 산령각, 극락전, 호지문, 시왕전, 보광전, 석굴암 등을 신축하여 명실 공히 서울에서는 제일가는 여승방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같은 불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눈물 나는 역사를 안고 있다.

보문종 종정 천혜안 스님께서 말씀하였다.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부였습니다. 아버지 송헌대 씨가

동안 통·오줌을 받아내던 아버지가 갑자기 회복되어 하는 수 없이 은영이를 출가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영 스님이 출가하게 된 동기이다. 동화사 강원에서 겨우 <초발심자경문>을 마치고 은사파라 서울로 올라온 은영 스님은 어린 나이에 3년 동안 탁발하여 대중 공양미를 대고 불량담(佛糧釜) 아홉 마지기를 장만했



은 1000원이 넘으니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버지 100일재를 지내러 왔던 지혜통 씨가 거금 500원을 보내주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량문 속에서 고려 때 탑골승방 역사가 나오니 탑골승방은 한 비구니 사찰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인 문화재인 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은영 스님은 이때부터 당신이 할 일이 부처님과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한다. 되도록 새로 들어온 아이들에게 자신처럼 천대받지 않고 무식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문학원을 개설해 공부시켰는데, 당시 불교계 안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영명 스님과 흥정진·이종욱·김태흠 스님 등을 강사로 모셨다.

6·25사변 후에는 범패의식을 공부한 학인들이 연이어 나와 재·불공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여도 잘 되었고, 스님 수가 불어

출생부터 ‘출가인연’... 불사·포교에 한평생 세계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설립의 주춧돌 역할

꿈을 꾸니 비호리 뒷산에 큰 황소가 있어 집안으로 끌고 왔는데, 마구간에 매어 놓고 보니 황소가 아니라 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 안병화 보살님이 꿈을 꾸니 그 황소가 집에 있지 않고 어느 절에 가서 절승사를 짓고 있어, 아무래도 내 새끼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였답니다. 과연 생후 얼마 있다가 아버지께서 대덕장로로 소 팔려 나갔다가 일본 헌병들에게 독립지사로 인신되어 죽도록 맞고 소란 뜯기까지 겪어오신데, 가정이 일시에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동학사에 기도하며, ‘부처님, 아버지만 낫게 해주시던 아이 하나를 부처님께 바쳐 시복하게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3년 8개월

다. 그때 은사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금강산 장안사로 떠났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절 설립을 할까 걱정하던 차에 고향의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명인 사제와 함께 밥을 해 약속터에 올라오는 사람들과 활터 손님들까지 밥을 해먹이니 절 밥이 맛이 있다고 오는 사람마다 불전을 놓고 불교에 대해 물어서 저절로 포교하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송인동 어른 보살님이, “나는 집에 있어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외롭게 지내니 어머니와 함께 밥보시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여 좋다고 하니 돈 300원을 가지고 와 요사채를 짓고, 법당불사를 준비하였는데, 3년 동안 고생하여 겨우 돈 200원을 준비하였는데, 절 지을 돈

나는 것처럼 신도 수도 불어나 탑골승방을 거쳐 간 수좌가 무려 300여명을 넘었고, 거기서 길러진 고아들 또한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버려진 사람이 많았던 사람, 전쟁고이나 증병환자를 까지도 똑같이 길러서 내전(內典)을 마치고 대학에 보내고, 나아가서는 외국 유학까지도 보내 굴지의 종단으로 발전하니 지금 와서는 세계 유일의 여성불교종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덕암 스님이 스님 49재 때 들었다.

“항내는 향로를 감돌고, 쫓붙은 어두음을 밝히는데/ 은영 스님은 보문에 잠들었으니/ 물노라 은영이여/ 동서남북, 상하 문 가운데/ 어떤 문이 진자 문인가!”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한국불교대승조계종 총무원
승원사
주지 법광
신도일동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전화 055)338-4008 / 010-4457-6556

한국불교대승조계종 경남서교구총무원
자비사
주지 지정
신도일동
경남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60번지
전화 055)692-6311

주지스님께 권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아래 태아영가를 정성과 사랑으로 품어 안고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장보살님(소불)을 법당에 모셔두고 낙태영가 천도대신 지장보살님을 한 佛씩 모시도록 권장하시면 쉽게 동참하시어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불크기 약7치 제조 국산 / 디자인 등록 출원

문의전화
051)336-9922 / H.P 011-567-2626

부산 북구 법정사 주지 합장
계좌번호 : 농협 177467-51-075633 법정사
새마을 1615-09-045513-6 법정사

하늘의 기운, 신의 숨결, 조상의 지혜
천년 역사의 전통
槐 槐 黃 黃 紙 紙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제품 고향지는 해나무(일명 귀신나무)의 꽃과 열매(콩감은)를 당년 7월7석(전삼일, 후삼일)에 소승이 직접 채취(강원도 영월)하여 그늘에 잘 말린후, 동지날(전삼일, 후삼일)에 즈음 내이 그물로 9번 순수 한지에 물들이어 건조시키는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작업시에 발생하는 역한, 냄새와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가정에서는 제작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대용품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최저가품인 창호지로 그 용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승은 옛 선사님의 비법 그대로 순수 해나무로 수작업한, 전주한지를 염색, 정확히 9번 물들이어 건조하였음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인정하며,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제작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시어 미리 주문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주문처: 전북 장수군 계곡면 농소리 589번지 문현암
판공함장 (063)353-1232 / 010-6229-0108
동원: 507079-51-012924(예금주:이경주)
E-mail: m3531232@hanmail.net

전장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24권 15,000원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곁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중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펴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장 대선사 범어집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사의 거목 지혜제일 전장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쳐던 삶. 전장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았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현실 / 선문염송 031-531-6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구정연후로 인해 1월달만 광주 1월 15일, 부산 1월 18일로 변경됩니다.

02-3494-0122 www.zenparadise.com